

# “세계적 인기 비결은 심플함이죠”

“이렇게 단기간 전 세계에서 열풍이 불 것까지는 예상 못 했어요. 알뜰떨다다가 좋다가 ‘감정 롤러코스터’를 타고 갔네요.”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인기 순위 1위(‘플릭스 패트롤’ 기준)를 달리고 있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만든 황동혁 감독은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화상으로 만난 그는 작품의 인기 비결을 묻자 “심플함”이라고 답했다.

“(작품 속 등장하는) 놀이가 모두 간단하고, 다른 게임 장르와 다르게 서사가 더 자세히 참가자들에게 감정 이입을 해서 몰입하게 되는 점이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 게임이 단순한 한국의 옛날 놀이이지만 세계적으로 어떤 소구력이 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보고 넷플릭스와 작업했죠. 물론 이 정도까지는 예상 못 했습니다.”

황 감독은 이어 “‘킹덤’ 덕에 갖이 유행했다서 찍으면서 ‘달고나 같은 게 비싸게 팔리는 것 아니냐’고 농담을 했는데 그게 실재가 돼서 얼떨떨하다”고 웃었다.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 돌풍에 넷플릭스도 주목하고 있다. 공동 CEO인 테드 서랜드도 “넷플릭스 작품 중 최고 흥행작이 될 수도 있다”고까지 발언했다.

이에 황 감독은 “넷플릭스가 순위를 잘 공개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나서서 웃(작품 속 트레이닝복)도 입어주시고 수치를 기반으로 한 예상치도 발표해주셔서 그 자체도 너무 놀랍다”며 “진짜 말씀대로 이왕 여기까지



황동혁 감독.

/연합뉴스

##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 “처음엔 난해하단 평” “게임보다는 사람이 보이는 작품으로 남았으면”

은 것,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흥행한 인기작이 됐으면 하는 욕심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오징어 게임’은 2008년부터 기획됐다고 한다. 황 감독은 “당시 영화

로 만들어보려고 했을 때 굉장히 낯설고 기괴하고 난해하다는 평이 많아서 만들 수가 없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살벌한 서바이벌 이야기가 어울리는 세상이 됐고, 현실감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슬프게도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부자가 서민을 갖고 노는 게임이라는 콘셉트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장르에서 클리셰처럼 나와 있는 부분 이긴 하다”며 “2008년 만화에 폭 빠져 있을 때 ‘라이어 게임’이나 ‘헝거 게임’ 같은 걸 자주 봤다. 어려움에 부딪친 사람들을 데려와 게임에 참여시키는 작품들을 보고 영감을 떠올렸다”고 설명했다.

황 감독은 전화번호 유출 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자세하게 확인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 제작사 쪽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오징어 게임’은 일본 영화 ‘신이 말하는 대로’ 등 표절 논란이 일기도 했다.

황 감독은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오징어 게임’)은 게임보다 사람이 보이는 작품이라는 점이다. 전 세계 남녀노소 누구나 30초 안에 게임 룰을 이해할 수 있어 사람 감정에 집중할 수 있다”며 “또 다른 작품은 한 명의 영웅을 내세우지만, 이 작품은 ‘무저’의 이야기다. 어떤 영웅이나 승자도 없다”고 설명했다.

기대 이상의 흥행력을 보여준 덕분에 시즌2에 대한 관심이 크다.

황 감독은 “일단 황준호(위하준)가 죽었는지는 비밀”이라며 “(시즌2를) 안 한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 같기도 하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들을 몇 가지 있는데, 넷플릭스와 좀 더 얘기해봐야 할 것 같다. 시즌1 하면서 이거 6개 빠져서 임플란트하고 있는데 걱정”이라고 웃었다.

/연합뉴스

## 제4회 전주국제단편영화제 오늘 개막

‘씨네 백신 42회분’ 슬로건

전주국제단편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제4회 영화제를 30일부터 5일간 전주시내 마타운에서 개최한다.

올해 영화제 슬로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염원 차원에서 ‘씨네 백신 42회분’으로 정해졌다.

슬로건과 같이 이번 영화제에서는 국제 경쟁 15편, 국내 경쟁 16편, 전북 경쟁 8편, 개막작 3편 등 42편이 상영된다.

개막작은 페이먼 제키앗 감독의 ‘E14’, 민현기 감독의 ‘사는 게 먼저’, 에네스토 로우 감독의 ‘원 라스트 타임’이다.

E14는 2주 자격리 기간 영국의 가장 발전한 주거 지역에서 이뤄지는 인간 행동에 관한 감독의 연구물이다.

사는 게 먼저는 오웬된 대기 속에서 방독면을 벗고도 적응한 주인공을 통해 환경을 배반한 진화의 역설을 담았으며 One Last Time은 전염병으로 집에 고립된 할머니가 가전제품 수리기사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렸다.

개막작이 스크린에 걸리는 30일부터 영화제 출품작은 5일 동안 2차례 상영된다. 영화제 조직위는 심사를 거쳐 국제



전주국제단편영화제 포스터.

/전주국제단편영화제 제공

경쟁 4편, 국내 경쟁 7편, 전북 경쟁 4편에 대해 시상할 예정이다.

곽효민 전주국제단편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올해 영화제 기간 전 세계의 다양한 단편 영화를 상영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방역 수칙도 철저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성추행 파문’ 조현훈, 필명 복귀 논란에 사과

“숨기려는 의도 없었다”...tvN ‘홈타운’ 크레딧서 삭제

성추행 파문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영화 감독 조현훈(사진)이 필명으로 tvN 드라마 ‘홈타운’의 작가가 복귀해 논란이 일자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조 감독은 지난 28일 “주진이라는 필명의 작가는 제가 맞으며, 2013년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영화계 동료에게 한 것 또한 제가 맞다”고 밝혔다.

이어 “제 과오로 인해 고통받은 분과 영화계 동료들, 지금 방영 중인 작품의 시청자 및 관계자분들께도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독립영화 ‘꿈의 제인’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조 감독은 지난 2018년 과거 술자리에서 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인정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조 감독은 성추행 파문에 대해 “당시에 지금도 그 일을 부정하거나 숨기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고, 그 마음은 변치 않았다”면서 “여전히 끊임없이 되뇌고 반



성하고 있다. 저로 인해 상처받은 분께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홈타운’의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 측은 “작가의 성추행 관련 논란을 뒤늦게 인지했다”면서 “이번 주 방송분부터 크레딧에서 작가의 이름을 지우고, 향후 작품 제작에 있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촬영이 현재 막바지에 들어간 만큼 작품의 내용이나 방송 일정에는 변동이 없을 예정이다.

‘홈타운’은 1999년 가상의 도시 사주 시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일들과 그에 연루된 인물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유재명, 한예리, 엄태두 등이 출연한다.

/연합뉴스

## 프로듀서 박문치, 미니앨범 ‘박루라’ 발매

복고 감성을 세련되게 재해석한 ‘뉴트로’ 음악으로 주목받은 프로듀서 박문치가 새 미니앨범(EP)을 발표했다.

소속사 매직스트로베리 사운드에 따르면 박문치는 지난 28일 객원 멤버 루루, 라라와 함께 한 스페셜 미니앨범 ‘박루라’(ParkRuRa)를 공개했다.

보컬리스트 루루, 라라는 박문치의 크루 ‘박문치 유니버스’를 통해 꾸준히 함께 호흡을 맞춰왔다. 이들과 함께 한 새 앨범은 R&B 솔, 뉴잭스윙 등 여러 장르를 차용해 박문치의 폭넓은 음악적 감각과 성숙해진 음악 세계를 담았다.

R&B 솔 장르의 타이틀곡 ‘무브!’(Move!)는 경쾌한 비트에 듣기 편한 멜로디가 어우러진 곡이다. 이를 포함해 총 4곡이 수록됐다.

박문치는 “멋진 친구들의 목소리와 제 고민이 담긴 트랙들을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박문치는 MBC 예능 ‘놀면 뭐하니?’의 짝소리 프로젝트에서 1990년대 음악을 감각적으로 재현하며 대중적으로 이름을 알렸고 엑소 수호, 백현, 강다니엘, 권진아, 데이식스 영계에 등 많은 스타와 협업했다.

/연합뉴스

## BTS, 2년 만에 대면공연 재개

11·12월 미국 LA 소파이 스타디움 내달 24일 온라인 스트리밍 콘서트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오는 11월 미국에서 2년 만에 대면 콘서트를 재개한다.

BTS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오프라인 공연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LA’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공연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소파이 스타디움(SoFi Stadium)에서 11월 27·28일과 12월 1·2일 총 4회에 걸쳐 열린다.

공연 예매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위버스와 공식 예매처 티켓마스터(Ticketmaste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TS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팬들과 직접 대면하는 공연을 여는 것은 2년 만이다.

2019년 10월 말 서울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러브 유어셀프:스피크 유어셀프’ 월드투어 파이널 공연이 이들의



그룹 ‘방탄소년단’.

/빅히트뮤직 제공

마지막 오프라인 콘서트였다.

지난해 4월부터는 ‘뎀 오브 더 솔’ 월드투어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팬데믹 사

태를 맞으며 전면 취소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이번 LA 공연에 대해 “코로나19로 대면 공연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가 및 지역별 방역 방침과 현황을 두고 대면 공연 기회를 모색했다”고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련한 소중한 자리인 만큼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돌 것”이라며 “새롭고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탄소년단 멤버들도 이날 위버스 개제 영상에서 “이제 ‘퍼미션’(허가) 없이 함께 출몰할 수 있는 시간이다가 오니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며 “오랫동안 기다리신 만큼 후회없는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 부탁드립니다”고 말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모았다.

한편 BTS는 이에 앞서 다음 달 24일에는 온라인 스트리밍 공연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를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

오늘의 운세 김도완 선생 제공 02-766-1818 www.esazu.com

9월 30일 (음력 8월 24일)



子

48년생 가능하면 듣기 싫은 말은 삼가라. 60년생 급하게 안달하지 말고 기다려라. 72년생 우유부단하면 손해만 본다. 84년생 뒤집어 생각하면 길이 보인다.



丑

49년생 가족과 함께 외식을 나간다. 61년생 노력에 걸 맞는 결실을 맺는다. 73년생 오르고 또 오르니 정상이 보인다. 85년생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寅

50년생 먹을 것 없는 제사에 절만 하나다. 62년생 한 번만 더 지켜보자. 74년생 지인의 도와달라는 요청을 외면하지 말라. 86년생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라.



卯

51년생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한 시기이다. 63년생 일은 꾸준히 있으면 실적이 시월된다. 75년생 직장에서의 고민이 해결된다. 87년생 직장에서 인정받는다.



辰

52년생 변화보다는 현상유지에 힘쓰라. 64년생 정신이 없지만 일은 술술 풀린다. 76년생 곧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88년생 항상 인생이 즐겁지만은 않다.



巳

41년생 주변의 흐름을 놓치지 말라. 53년생 하든 입을 멈추지 말고 계속 진행하라. 65년생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다. 77년생 뚱뚱의 소득이 있겠다.



午

42년생 지인과의 돈거래는 삼가라. 54년생 중요한 계약은 한 번 더 생각하라. 66년생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78년생 지금은 공격보다는 방어에 집중해야 한다.



未

43년생 외출을 삼가고 휴식을 취하면 이롭다. 55년생 부질없는 일에 힘을 낭비하지 말라. 67년생 건강을 너무 과신하지 말라. 79년생 친구가 찾아오겠다.



申

44년생 싫은 일도 일단 해보면 할만하다. 56년생 재물이 들어오지만 곧 나간다. 68년생 모든 일에는 정해진 절차가 있다. 80년생 이성 관계에 변화가 있겠다.



酉

45년생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다. 57년생 타인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 69년생 사랑하는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81년생 구리가 황금으로 변하는 때이다.



戌

46년생 오랜 답답이 풀리는 날이다. 58년생 희생 없는 성공은 없다. 70년생 좋은 사람을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82년생 갑자기 인기가 높아진다.



亥

47년생 사랑하는 가족을 믿고 의지하라. 59년생 고민거리가 저절로 해결된다. 71년생 기분 좋다고 과음하면 실수한다. 83년생 오늘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